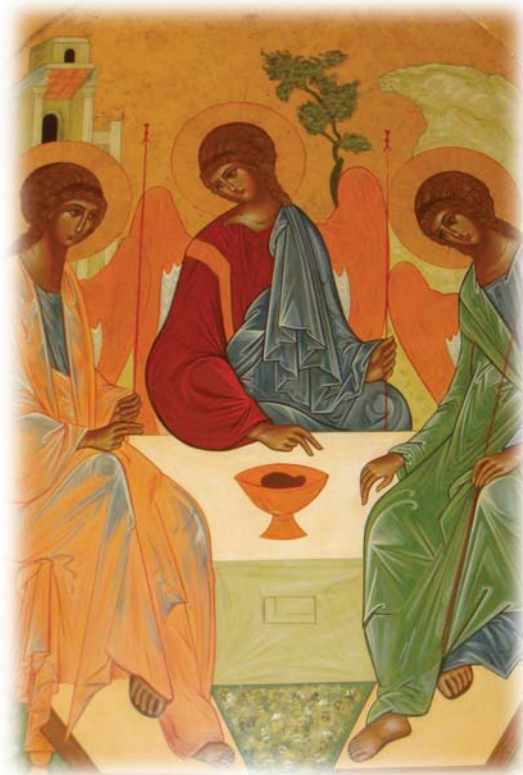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2년 3월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

(루카 13,6-9)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18번 ‘골고타 언덕’을 부릅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받으신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십시오.

삶의 이야기

진행자 아래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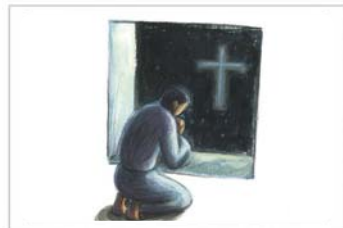
〈썩은 열매〉



〈사랑의 열매〉



〈회개 - 하느님께로 유턴〉



〈회개의 기도〉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루카복음 13장 6-9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삼 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 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돌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을 때는

진행자 사순시기 동안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다짐을 하나씩 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13,6-9의 비유는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특수자료.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한다.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잘라 버린다는 소재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종말에 단죄의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으레 역점이 끝에 있는 법, 따라서 8-9절에 비유의 뜻이 잘 드러난다.

“... 금년만 그냥 두십시오. ...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잘라 버리시지요.”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 그러니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면 종말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것이 비유의 뜻이다.

(200주년 신약성서 주해에서 발췌)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합시다.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46번 ‘사랑의 송가’를 부릅시다.

궁
금
했
어
요



유아는 왜
세례를
받아야
하나요?

성당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매님과
본당의 신부님의 대화입니다.



일치와 사랑의 실천

정은하 릿다(창원상남본당, 2구역 1반 반장)

사과공동성당 창원상남본당 2구역 1반 소공동체는 이제 아기를 낳은 새
댁부터 장성한 자녀를 둔 자매님까지 여러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낮 미사 후 함께 모여 복음나누기를 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나누기 후에는 간단한 다과를 곁들이며 신앙생활 뿐 아니라 일상생활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처럼 정을 돈독히 쌓으면서 지냅니다. 이처럼 서
로 가족같이 지내다 보니 새로 전입해온 자매님도 낯설어하지 않고 편하
게 소공동체에 참석할 수 있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성당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궁금한 것이 많아 본당의 날이나 성령세미나가 무엇인지 물어
오는 새 신자들에게 작고 사소한 것들도 친절히 설명해주고 나누어가며
마음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반원들은 대부분 레지오나
본당 각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
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모두 열심히
소공동체에 참여하여 주시고 본당
행사 참여나 봉사활동에도 기쁜 마
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성당 리모델링 축하행사
로 음악회를 열었는데 모두 바쁘신



시간 쪼개서 합창연습에도 나와 주시고 함께하며 하느님 안에서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역시 독창보다는 합창이 더 멋진 화음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듯 나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하는 삶이 더 행복하다는 걸 또 한번 느끼며, 2구역 1반 식구들과 본당 모든 교우들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좋은데,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라는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모임에 참관하셨던 본당 신부님과 수녀님께서는 화기애애하고 가족같은 따뜻한 분위기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며 소공동체 소개에 적극 추천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지면을 통해 그것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말보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이 더 아름답듯, 언제나 말씀 안에 머무르며 지금 여기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려는 2구역 1반 반원들의 삶의 모습을 알고 있기에,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아쉬움 대신 더 큰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는 것을 느낍니다. 함께 하기에 감사하고 고마운 2구역 1반 식구들. 고맙습니다.



〈창원상남본당, 2구역 1반 반원들〉

복음나누기 7단계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복음...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